

지방제거술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적인 검진을 통해 비만의 원인을 알아내야 합리적인 살빼기를 할 수 있다. 비만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 그에 맞는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비만클리닉을 찾는 것이 좋다. 또 비만클리닉을 찾는 것만으로 치료보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처방 받은 치료 방법을 실천하는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제거술은 심하게 뚱뚱하지 않으면서도 날씬해지고 싶은 사람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시술법이다. 지방제거술에는 지방흡입술, 초음파 지방분해술, 전기침분해요법, 절제법 등이 있다. 지방흡입술은 가장 보편화되고 널리 쓰이는 수술 법이다.

지방흡입술

지방흡입술은 비만이나, 출산, 노화현상 등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체형을 날씬하고,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는 수술이다. 어떤 사람들은 살이 쯤 온몸 전체를 수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

론적으로나 가능한 것이다. 지방흡입술의 대상이 되는 신체부위는, 배,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겨드랑이, 목 정도이다. 이들 부위는 영어로 LFD(localized fat deposition)라고 불리우는 데, 이들 부위의 지방은 그 특성이 몸의 다른 부위의 지방과 전혀 달라서, 다이어트나, 운동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 줄어들지 않는다. 흔히들 다이어트나, 운동 후에 체중도 꽤 많이 줄고 얼굴 살은 쏙 빠졌는데, 배, 엉덩이, 대퇴부, 무릎안쪽, 팔의 겨드랑이 쪽, 허벅지 등의 부위는 볼륨과 모양이 그대로인 것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이어트나, 운동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LFD의 특성이며 이들 LFD부위는 지방흡입술이라는 수술적 처치를 받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지방흡입 수술 후에 그 수술결과가 지속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우리 몸의 지방세포의 숫자는 사춘기까지는 그 숫적 증가가 세포분열에 의해서 계속되지만, 일단 사춘기가 지나게 되면 숫적 증가는 없어지게 되고, 지방

세포 하나 하나의 양적 팽창이 일어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아기의 비만이, 성인기의 비만보다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즉 지방흡입 수술은 지방세포의 숫자를 줄여주게 되고 줄어들은 지방세포의 숫적 증가는 사춘기 이후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전과 같은 음식섭취, 운동 등의 노력을 계속하여, 지방세포의 양적 팽창만 막아준다면, 수술로 얻은 결과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지방흡입술의 방법은 약 5mm 정도의 피부절개 3~5개를 통하여, 가느다란 흡입관을 삽입한 후 음압을 걸어 지방조직을 빨아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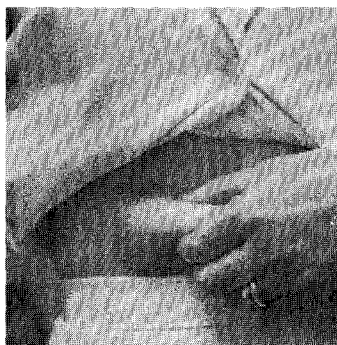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조직만을 선택적으로 흡입하는 것이 수술의 결과를 좋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들이 사용되고 있다. 요즘 주로 사용되는 방식들로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지방조직을 액체화시킨 후 빨아들이는 초음파 지방흡입술이 보편적인 방법이며, 이외에도 회전

식 지방흡입술,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흡입술 등이 있지만 수술기구의 종류가 수술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며, 수술을 집도하는 시술자의 경험과 전략이 수술결과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수술 방법이라 하여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옳지 못한 선택이다.

지방흡입술의 경우,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술도중에 지방만이 흡입되는 것이 아니고, 피, 조직액 등도 같이 흡입되므로, 무한정 뽑아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번의 수술에 1500cc 이상을 흡입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 이상의 흡입이 있었을 경우는 수혈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이 한계를 넘지 않는다.

수술과 회복

수술부위가 작을 때는 국소마취만으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지만, 부위가 넓거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수술할 경우에는 전신 마취 하에서 수술을 하게 된다. 수술 시간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3시간 정도 걸리며, 수술



후 저체온증이나, 빈혈과 같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하루 정도는 입원하여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술 후 실밥을 뽑을 때까지는 5~7일간의 기간이 필요하며, 이 동안 3회 정도의 통원 치료를 필요로 한다. 수술 후 수술부위의 모습을 단면으로 상상해 본다면, 별집모양을 한 빈 공간이 생겨있는 상태이고, 이 빈 공간만큼이 압축되어 외형을 줄여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빈 공간이 압축되는 것은 수술 후 2~3일뿐이고, 이 기간이 경과되면 그 빈 공간 사이에 흉터 살(fibros scar tissue)이 약 3개월에 걸쳐 서서히 증가하게 되어 다시 팽창되므로, 흉터 살이 정상적인 양으로 줄어들기까지 즉 이론적으로 약 9개월의 긴 시간동안은 수술의 효

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회복과정을 좀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고탄력 특수압박 스타킹이나, 압력보조의류의 착용을 약 3개월간 권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은 피부의 탄력성을 잃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내용이고, 만약 피부가 탄력을 잃어버린 경우라든가, 복부의 경우 복직근이 늘어져있을 경우에는, 피부를 함께 절제해 내기도 하고, 늘어져 있는 복근 또한 줄여주는 복잡한 수술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복잡한 수술을 받게 되면 입원기간이 약 7일 정도로 늘어나게 되며, 그 외는 같은 과정을 거쳐 회복되게 된다. 수술결과에의 관건은 최적량의 지방을 피부 및 중요 혈관이나 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고 흡입하여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한다.

지방제거술은 비만치료를 꾸준히 받아도 효과가 없을 때,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먼저 체중 조절이 가능하다면 식사요법과 운동요법, 그리고 약물요법으로 치료해 보자. 